

1.게임 간단 소개



“1919년 경성에 존재했던 작은 수선 가게, <이양>.”

모종의 이유로 더 이상 고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옥순은 일하던 면직 공장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종로 탑골공원 근방에 '이양'이라는 이름의 수선 가게를 개업한다. 새로운 터전에 적응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옥순은 어느 날부터가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의문의 사내를 의식하게 되고, 딸 란서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 3.1 운동이라는 전민족적인 항일투쟁을 성공시켜라!

| | | | |
|--------|---|-----|-------|
| 제목 | <이양> 수선을 꽃피우다 | | |
| 장르 | 비주얼 노벨 / 퍼즐 / 캐주얼 / 어드벤처 | | |
| 타겟 | 도트 감성의 비주얼 노벨 게임을 즐기는 게임 이용자 오락성이 풍부한 기능성 게임에 흥미 있는 게임 이용자 | | |
| 플랫폼 | PC | 그래픽 | 2D 도트 |
| 시간적 배경 | 1910년대 후반 | | |
| 공간적 배경 | 종로 탑골공원 근방 | | |

2.게임 특징

1. <이양> 수선을 꽃피우다.

'이양'은 순우리말로 '이음새'를 뜻합니다. 옥순이 운영하는 수선가게는 뜯어진 옷을 수선해주며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조선인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제공합니다. 즉, 본 게임의 제목인 '이양'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제고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게임의 목적을 은유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1 운동이라는 진중한 역사적 사실을 메인 및 서브 스토리를 관통하는 주제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D 픽셀 아트 특유의 캐주얼한 분위기가 게임의 무게감을 중화시켜 역사적 고증이 짙은 게임을 즐기지 않는 플레이어들이라도 부담 없이 플레이를 가능케 합니다.






2.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성이 가득한 공간 아래, 플레이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인 '옥순'과 함께 독립운동의 흐름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민족 중심 서사 게임인 <이양>은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저항 의지가 꺾였으나 독립운동가인 딸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심리적 고충과 결국 그녀가 학생들의 3.1 운동을 돕게 되면서 조국에 대한 염원 및 삶의 의지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서사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옥순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 놓인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제 강점기 시절의 수모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우를 상상해보게 됩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로서 죽음을 불사하지 아니면 일제의 억압에 순응하며 살아갈지.

플레이어는 '엄마'이자 그 시대를 살아가던 평범한 '조선인'인 한 인간의 내적 고뇌와 성장을 선형적으로 바라보며 옥순과 함께 끊임없이 고뇌하고, 그녀가 독립운동가로서 각성하는 과정을 동행합니다.

| 수선 가게 '이양'의 주인, 옥순 | 옥순의 딸, 란서 | 옥순의 남편, 광철 | 의문의 사내, 장 건호 | '이양'의 마스코트, 백구 |
|---|---|---|--|---|
|  |  |  |  |  |
| 당차고 부지런한 성격의 20대 여성. 딸을 향한 모성애가 매우 강하다. 고향을 떠나 종로 탑골공원 근방에 '이양'이라는 이름의 수선 가게를 개업한다. | 사려 깊고 정의로운 성격을 지닌 14살 소녀 호기심이 많아 신문물을 접하거나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 옥순의 남편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기밀 서류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일본 순경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다 | 독립운동 참여를 권하기 위해 옥순을 찾아온 독립운동가이자 광철의 동료였던 인물이다. 말수가 적고 혐악한 인상을 가지고 있으나, 온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인물 | 어린 진돗개. 매우 부드러운 흰 털을 가지고 있다. 경성의 구석진 골목에 버려져 있던 백구를 옥순이 가게로 데려오면서 모녀의 가족이 되었다. |

1막

옥순이 면직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차린, 경성의 작은 수선 가게 '이양'. 소나무 향이 풍기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느낌의 가게 뒷편에는 모녀가 사는 집이 있다.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근처 학당에 입학한 딸 '란서'가 등교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그러나, 모녀의 평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적을 울린다. 옥순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사내의 존재를 눈치챈다. 가게에 혼자 있을 때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검은 모자를 쓴 사내는 옥순에게 뜻밖의 물음을 던진다. 독립운동가로서 일제에게 죽임을 당한 남편의 이름을 거론하자, 깜짝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옥순에 사내는 곧 거대한 민족저항 운동이 일어나니 도와달라는 제안을 해오는데.....

뿐만 아니라, 옥순은 란서의 비밀을 우연한 계기로 눈치채게 된다. 란서는 3월 1일에 거행할 전민족적인 만세 운동을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옥순은 죽은 남편의 모습과 딸의 모습이 오버랩 되자 단호한 얼굴로 독립 운동준비를 당장 그만두라며 딸과 실랑이를 벌인다.

하지만, 란서는 자신을 걱정하는 옥순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독립 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값진 일이 아니겠냐며 되려 옥순을 설득한다. 그게 김마리아 선생님께서 배운, 한국인의 고귀한 정신이라 말하는 란서의 말에 옥순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고뇌하게 된다.

결국, 옥순은 딸을 지키기 위해 민족 해방을 염원하는 한명의 조선인으로서, 누구보다 용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학생들의 운동을 돕겠다 마음 먹는다.

2막

한글 서적을 모조리 찢고 불태우려는 헌병경찰이 한눈파는 사이 책 한권을 치맛단 속에 숨기고, 찢어진 책이 음부를 꿰매달라 '이양'을 찾아온 소녀, 28 독립선언서의 전달을 위해 수선을 부탁하는 독립 운동가, 토지와 쌀을 강제로 빼앗긴 농부 구 씨의 비통한 죽음과 아들이 군함도로 끌려간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옥순은 그들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며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심과 민족애를 회복하게 된다. 독립운동가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3.1 운동을 준비하는 옥순은 어느새 엄연한 독립 운동가가 되어 있었다.

3월 1일. 여느때와 같이 평온한 표정으로 가게를 정돈하는 옥순과 등고 준비를 하는 란서, 옥순은 란서가 입을 백의를 수선하며 란서에게 독립운동가였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란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조선인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란서에게 수선을 끝낸 옷을 건네주며 모녀는 서로를 포용한다.

수많은 인파들이 탑골공원을 애워싼다. 옥순은 란서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뺨뺨한 긴장감이 가득하다. 다만 모두가 너무나 할 것 없이 반짝이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기미독립선언서라 불리는 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모자와 천을 흔들고, "조선 독립 만세!"라 외치기 시작한다. 우렁찬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지며 인파는 수천, 수십만 명이 되어 시위의 열기가 고조된다. 행진과 마주한 이를 또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물결 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나라 잃은 통곡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조국의 국권회복을 갈망하는 조선인들의 한 섞인 외침. 멀지 않은 곳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란서의 옆으로 간 옥순은 딸의 손을 단단히 마주 잡는다.

결연한 표정의 모녀는 큰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

3막

3월 1일 행진 시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3월 5일 남대문역 광장에서 만세시위를 하던 학생들과 청년을 대거 검거하기 시작한다.

검은 모자의 사내, 장 권호는 공경에 처한 모녀를 발견하고 란서가 자신과 함께 임시 정부가 지어질 상해로 떠나길 제안한다.

사내의 제안이 란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은 옥순은 란서의 손을 마주잡고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란서 또한 잘게 떨리는 옥순의 손을 단단히 마주잡고, 모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 해방을 위해 힘쓰기로 약속한다. 옥순은 침착한 손놀림으로 수의를 완성해 란서의 손에 쥐어준다.

그 언젠가, 독립운동을 하러 출가한 아들에게 수의를 지어 준 손님처럼, 이것이 마지막 이별의 순간임을 직감한 모녀는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환히 웃는 얼굴로 작별을 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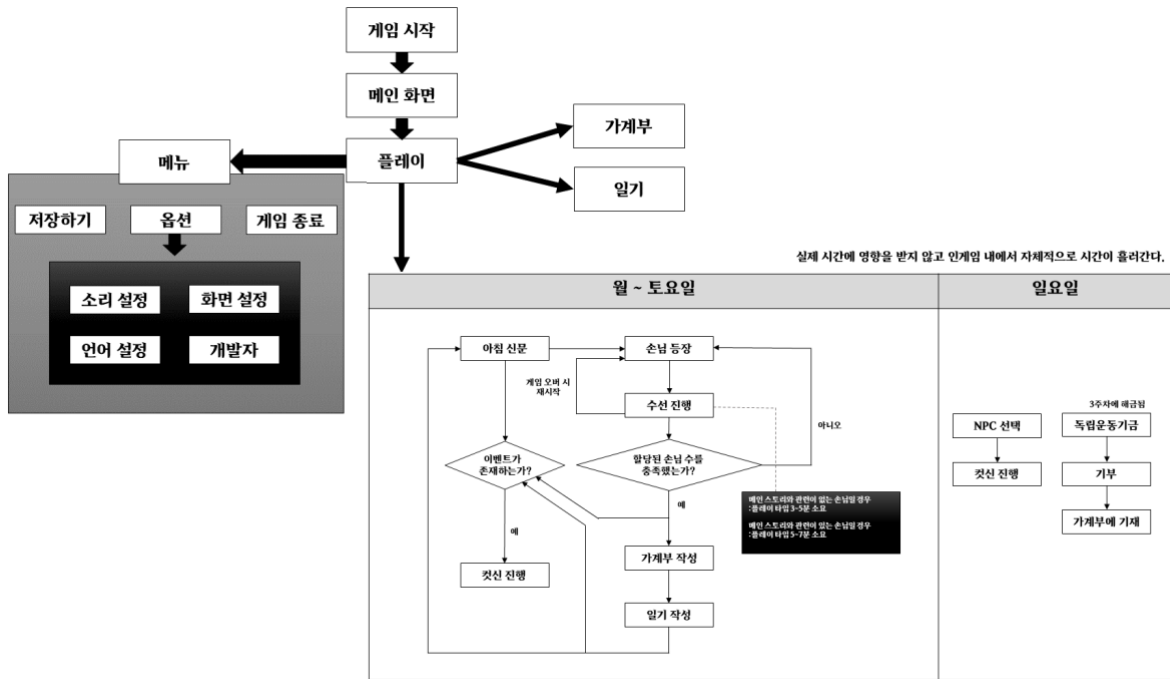
후일, 시원한 소나무향이 풍기며 따스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수선 가게에 홀로 있는 옥순은 상해에서 온 편지를 읽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딸 란서와 남편 광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하다. 정갈하게 쓰여진 편지를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가게 영업을 알리기 위해 열려있던 문을 굳게 잠근 뒤, 옥순은 상인들의 항일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가게를 나선다.

3월 22일, 남대문 앞에서 노동자대회에서 해방을 위해 제 한몸 바쳐 시위하는 옥순의 모습이 독립 신문에 실리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3. 게임 플레이 방식

1. 플로우 차트

플레이어는 수선 과정에서 손님과 대화하며 그들의 대화와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수선 행위는 미니게임으로 진행되고 손님이 바뀔 때마다 반복됩니다. 플레이어는 월~토요일에 수선을 진행하고, 일요일에 동네 시장을 방문합니다. 시장에서는 독립운동 기금을 기부하거나 NPC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를 통해 스토리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 획득하게 됩니다.



2. 조작 방식

조작 시스템

마우스 - 캐릭터 이동

키보드

1. A,S,D,F : 도구를 지정하여 변경
2. i or 아이콘 : 캐릭터 메뉴 [가계부, 일기, 업적, 맵]
3. ESC or 아이콘 : 시스템 메뉴 [설정 (사운드, 그래픽, 조작, 언어), 세이브, 종료, 개발자 노트]

스페이스 바

1. (미니게임 진행 시) 도구를 순차적으로 변경
2. (컷신 진행 시) 대사 넘김



3. 수선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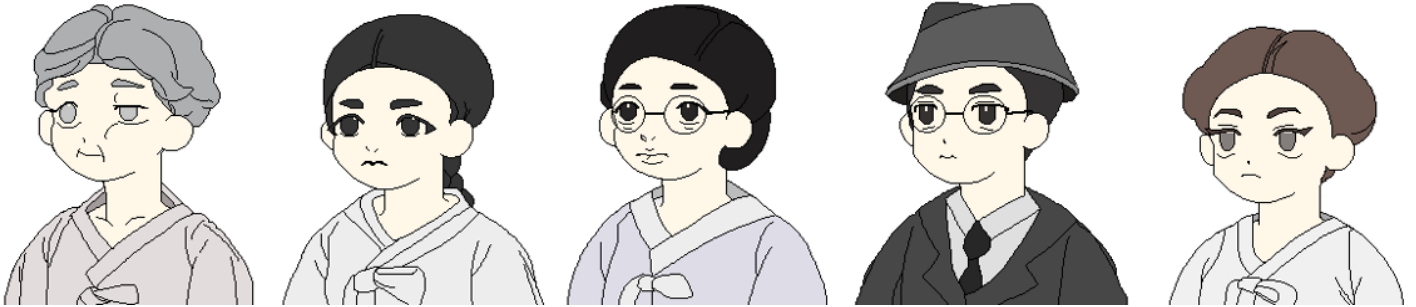
플레이어는 수선하는 행위로서 손님의 대사를 오브젝트로 사용하는 미니게임을 진행합니다. <이양>에는 한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한 미니게임이 6가지 존재하며, 손님이 방문할 때마다 3가지 미니게임을 랜덤으로 플레이 하게 됩니다.

| | | |
|------------------------|--------------------------|------------------------|
| <p>이양</p> | <p>칠교놀이</p> | <p>손때문은 재봉틀</p> |
| <p>수선 도구 준비</p> | <p>백구와 오방색 단추</p> | <p>털실 바꾸기</p> |

4. 시장 / 가계부 / 일기 시스템

| | | |
|---|--|---|
| | <p>가계 마감</p> | |
| <p>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독립 운동 기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액수는 엔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p> | <p>가계 마감 문구과 함께 수선성공 횟수와 수선실 패 횟수를 토대로 산정된 가계부가 작성됩니다.</p> | <p>플레이어가 일기에 작성될 인물 요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기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선택 / 키워드 / 네모칸 체크</p> |

4. 게임 이미지 (예: 캐릭터, 컨셉아트, 게임 플레이 등 자료 첨부)



5. 기타 추가 사항

- 1.한국 역사(6.25전쟁 등)를 주제로 하는 스토리 DLC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 2.모바일 플랫폼 개발 또한 구상하고 있습니다.